

칼뱅(Calvin) 신학의 윤리적 성격: 에릭슨(E. H. Erikson)의 발달심리학의 신학적 적용

이승갑(한일장신대학교 교수)

I. 시작하는 말

II. 에릭슨의 도덕 발달 이론

III. 에릭슨의 도덕 발달 이론에 대한 신학적 숙고와의 대화 속에서 본 칼뱅의 윤리적 신학에 대한 재-숙고

1. 실존주의
2. 인간의 타고난 능력
3. 발달 과정
4. 상호성

IV. 마치는 말

• ABSTRACT •

It is well known that certain psychoanalytic studies attempt to discern the developmental processes of ethical consciousness in human beings. Psychoanalytical theory can contribute greatly to recent new streams in theological thinking which seek to identify the ethical implications within certain theologies. For example, E. H. Erikson's moral developmental theory reflects obvious theological themes as it considers the existential, developmental, and mutual (shared) aspects of moral decision making in great detail and depth. Religiousness goes beyond the simple confession of propositional truth claims and is more than mere expressions of an inner emotional state or feeling. A raised religious consciousness must lead to such ethical moments that challenge each believer to make decisions regarding his or her life.

While most people tend to disregard the ethical aspects of Calvin's theology, it is, rather, the prevailing scholarly view that Calvin's theology has a very ethical orientation. As this paper intends to show, Erikson's moral developmental theory can significantly help one in thinking of the ethical aspects in Calvin's theology. As several theological themes based on Erikson's developmental theory are applied to Calvin's theology of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the supposition that Christian existence includes various moral developmental dimensions and also has a religious and communal nature will become apparent. For Calvin, justification by faith is an event of existential encounter between the sinner and Christ the Savior. And, for Calvin's theological anthropology, the inherent strength of the human being is rooted in and develops by an orderly pattern through his or her growing relationship with God. Furthermore, Calvin's doctrine of sanctification supposes that, as the Christian begins the new life in Jesus Christ, which is directed towards fulfillment and perfection in the future life, she or he is entering an ongoing developmental process of transformation which lasts a lifetime. Finally, Calvin emphasizes the important role of human relations within culture and society. For Calvin, defining human existence in the theological sense means that Christian piety is always interpersonal and social as well as directed heavenward, God-ward.

Key words : Calvin's theology, existentialism, moral development, process, psychoanalysis

I. 시작하는 말

비록 최근의 현상은 아니지만, 근래 신학계에서 대세라고 할 수 있는 한 특징적인 경향은 신학적 논의에 신학 이외의 다양한 학문분야들의 연구 결과들을 적용하기를 적극적으로 시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로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것으로, 인간 존재 안에 있는 윤리적 의식의 발달 과정을 확인하려는 노력으로서의 정신분석 연구(psychoanalytical study)¹⁾는 특히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 특히 윤리적 함의(含意)들을 발견하고자 의도하는, 그와 같은 특징적 흐름 위에 있는 최근의 신학적 시도들에 크게 관련성을 가지는 학문분야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소위 ‘종교성’(religiousness)은 몇몇 명제적 진리 주장들을 단순히 고백하거나 어떤 내적 정서 상태나 감정을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문제라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종교성은 인간의 실제적 삶의 다양한 측면들에 결정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적 삶은 종교적 신앙의 결과(열매)이다. 따라서 종교적 의식은 신자들 각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결단하도록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 동기들을 제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교리와 신앙의 삶이, 또는 종교와 도덕성이, 또 다시 표현하자면, 기독교 교의와 윤리가 서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신학들에서 그들 나름대로 어떤 윤리적 함의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다양한 시도들은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전통에 대한 해석과 삶을 연결시킴에 있어 다양한 길들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더욱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생각들을 기반으로 하여 에릭

1) 프로이드의 심리성적(psychosexual) 발달 단계이론, 피아제(Piaget)의 인지(cognitive) 발달 단계이론, 에릭슨의 도덕(moral) 발달 단계이론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슨(Erik H. Erikson)²⁾의 도덕 발달 이론(Moral Developmental Theory, 또는 심리사회적 이론)에 대한 한 신학적 숙고를 시도할 것이다. 사실 에릭슨의 이론은 관련 분야에서 이미 고전적 주제이며,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당연히 순수 신학전공자로서 필자는 그러한 연구들에 있어 전문가가 아니다. 다만 필자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에릭슨의 도덕 발달 이론에 대한 신학적 숙고의 시도가 필자로 하여금 에릭슨의 이론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칭의(Justification)와 성화(Sanctification)에 대한 칼뱅(John Calvin)³⁾의 신학을 새롭게 숙고하도록 도전했다는 점이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필자가 언급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필자가 아는 한, 칼뱅의 신학은 매우 윤리적 지향성(指向性)을 가진다는 사실은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⁴⁾ 그러나 동시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칼뱅 신학에서 윤리적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우에는 칼뱅이 구원의 과정에서 행위의 역할을 중시하는 로마 가톨릭 전통을 반대한 주요 종교개혁자들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너무 성급하게 몰두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일부 장로교회들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장로교 목사이며, 신학교에서 개혁신학의 전통을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개혁신학의 윤리적 차원들을 발견하는데 매우 크고 지속적인 관심을 견지해 왔다. 특히 칭의와 성화에 대한 칼뱅의 신학이 필자의 그러한 관심들 가운데

2) 에릭슨(Erik Homburger Erikson, June 15, 1902 - May 12, 1994)은 발달심리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로서 인간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그의 이론과 정체성 위기라는 말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3) 칼뱅은 개혁교회와 그 신학의 기초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특히 작년 2009년은 칼뱅의 탄생 500주년을 맞아 그의 삶과 신학을 새롭게 조명하는 많은 학술행사들이 치러졌다.

4) Cf. J. H. van Wyk, "Calvin on the Christian Life," in *Our Reformational Tradition*, directed. T. van der Walt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1984), 231. Van Wyk says, "the theology of Calvin on the whole reveals an ethical structure."

데 하나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오래 전 학부과정의 기독교교육 관련 수업에서 처음 접한 에릭슨의 도덕 발달 이론을 칼뱅의 신학에 있는 윤리적 측면을 숙고하는데 다소 자의적이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먼저 신학적 관점들로부터 에릭슨의 도덕 발달 이론을 분석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러한 숙고들을 칭의와 성화에 대한 칼뱅의 신학에 연결시켜 볼 것이며, 결과적으로 에릭슨의 이론에 대한 신학적 숙고들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칼뱅의 신학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필자는 칼뱅의 신학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그들의 기독교적 삶에 가지는 윤리적 함의들을 토론할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이 칼뱅의 신학에 내재한 윤리적 본질, 또는 성격을 분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필자는 이러한 간학문적 연결을 통한 숙고의 작업이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성을 가지는 종교개혁자의 한 사람인 칼뱅의 신학, 특히 칭의와 성화에 대한 그의 신학을, 그 윤리적 성격이라는 맥락에서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는다.

먼저, 에릭슨의 도덕 발달 이론이란 무엇인가?

II. 에릭슨의 도덕 발달 이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에릭슨은 인간의 사회심리학적 발달에 대한 연구로부터 자신의 윤리적 이론을 가져오려고 시도했다. 에릭슨의 도덕 발달 이론에 따르면, 각 인간은 8개의 결정적인 단계들(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의심 및 수치심, 주도성 대 죄의식, 근면성 대 열등감,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돈,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침체감, 자아 통합 대 절망감)을 지나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에릭슨이 “본래적” 덕목들이라

고 부르는 일련의 자아의 강점들이 나온다. 에릭슨은 그의 *Childhood and Society*(1963, 개정판)에서 그가 말하는 8개 단계들에 상응하는 “기본적 덕목들”의 순서를 제안했다.⁶⁾

여기서 에릭슨은 8개 덕목들을 3개의 보다 광의적 의미의 그룹들로 나눈다. 즉, 유아기와 유년기 덕목들은 희망, 의지, 그리고 목적, 그리고 덕의 원천으로서의 역량(competence)이고, 청소년기 덕목은 정절(fidelity)이며, 성인기 덕목들은 사랑, 돌봄, 그리고 지혜이다. 일 년 후, 그의 *Insight and Responsibility* (1964)에서, 에릭슨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개되는 8개 덕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그 덕목들을 자아의 강점들이 단계에서 단계로 발전하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그 과정에 관계시켰다.⁷⁾ 여기서 에릭슨은 이들 덕목들에 몇 가지 일반적 설명들을 부여했는데,⁸⁾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덕목들은 서로에게 불가분리로 연결되어 있는 한편, 서로 의존한다. 둘째, 각 덕목은 한 개인의 삶의 일생동안에 걸쳐 지속되며, 그 개인이 성숙하고 발전하면서 새로운 특질들을 획득한다. 셋째, 그 8개 기본적 덕목들은 개인의 생물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에릭슨이 말하는 저 유명한 사회심리학적(socio-psychological) 단계들에 대한 이론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함의들과 종교적 차원을 가진다. 인간의 사회심리적 발달의 과정에서 결정적 단계들 가운데서 적어도 세 가지, 예를 들어, 신뢰감 대 불신감, 자아정체감

5) Trust vs. Mistrust, Autonomy vs. Shame and Doubt, Initiative vs. Guilt, Industry vs. Inferiority, Identity vs. Identity Confusion, Intimacy vs. Isolation, Generativity vs. Stagnation, Integrity vs. Despair

6)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63), 274.

7) Chap. IV. “Human Strength and the Cycle of Generations.”

8) Nicholas Piediscalzi, “Erik H. Erikson’s Contribution to Ethics,” *Journal of Religion & Health* 12 (April 1973): 169-170.

대 역할 혼돈, 그리고 자아 통합 대 절망감,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오는 적응력이 있는 강점들 또는 덕목들은 그것들이 종교적 또는 도덕적 차원들을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로 고려된다. 말하자면, 에릭슨이 기본적 신뢰의 필요성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좋은 태도나 인격의 고상함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언급하고 있다.”⁹⁾ 에릭슨에게 있어서, 정신적, 정서적, 도덕적, 그리고 심지어 존재론적 도전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며 실존한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특징적으로 종교적인 양식으로 “주변 세계를 가지는 것, 그것과 연결되는 것, 또는 그것에 연결되는 것”을 요구한다.¹⁰⁾ 그러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와 사회학” 분야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심리적 개념들의 신학적 사용”을 시도해 왔고, 특히 인간 발달에 대한 에릭슨의 연구를 사용해 왔다는 사실은 특별히 납득할 만한 사실인 것이다.

필자는 인간의 도덕 발달에 대한 에릭슨의 가르침들을 필자 나름대로 이해하기를 시도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즉 에릭슨의 이론의 저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진화적’(evolutionary) 또는 ‘발달적’(developmental) 원리이다. 소위 “후성설”(Epigenesis) 이론¹¹⁾이 에릭슨의 라이프-사이클(life-cycle) 발달 이론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이론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기초적 전제이다. 에릭슨에 따르면, 태아의 발달은 임의적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잘 정돈된, 즉 연속하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태아의 발달에서 일어나는 것은 또한 인간의 사회심리적 발달

9) D. Yankelovich & W. Barrett, *Ego and Instinct: The Psychoanalytic view of human nature revisited* (New York: Random House, 1970), 121.

10) Robert C. Fuller, “Erikson, Psychology, and Religion,” *Pastoral Psychology* 44 (1996), 382.

11) 생물 개체의 조직, 기관 따위는 발생에 따라 변화하면서 형성된다는 학설로서 1795년에 독일의 생물학자 볼프(Caspar Friedrich Wolff)가 주장하였다.

에서 여전히 일어난다. 각각의 덕목, 그리고 모든 덕목들의 순서에서 각각의 덕목이 차지하는 자리는 인간 발달의 다른 부분들에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전진적으로(progressively) 상호관계 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이 우리의 인간이해와 관련하여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인간이라는 유기체는 궁극적으로 삶을 통해 전진하면서 전개되는 어떤 본래의 기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즉, 그 전개의 과정 속에서 각각의 기관은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전체로서 기능하게 될 때까지 각자의 특별한 상승의 시기를 가진다. 또한 각 단계는 모든 다른 단계들에 체계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에릭슨에게 있어서 발달은 질서정연하고, 차례로 일어나며, 그 구조에 있어 계급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한 주의할 것이 있다. 즉 에릭슨은 소위 “기원론적”(originological 또는 genetic) 접근에는 반대하는데, 말하자면 그는 발달의 의미를 주로 유아기의 시작들의 재구성으로부터 가져오려는 시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에릭슨은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하나의 통합된(integrated) 사회심리학적 현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편, 에릭슨의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상호성’(mutuality) 또는 ‘관계성’(relationality) 원리이다. 에릭슨은 삶의 전체 주기의 각 단계에 있는 위기(crisis)와 긴장(tension)의 내용을 무엇보다도 ‘관계’(relation)의 관점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에릭슨은 가장 초기 유아기의 경험에서 오는 신뢰의 ‘양’(amount)은 음식의 절대적인 ‘양’(量, quantities) 또는 사랑의 표시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관계의 ‘질’(質, quality)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에릭슨은 핵심적인 발달 단계들, 특히 청년기와 노년기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적 종교 생활에의 참여와 종교적 믿음들의 중요성에 관해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릭슨은 인간의 사

회심리적 생존은 연속적이고 중첩되는 세대들, 특히 조직된 상황들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대들의 상호활동에서 발전하는 주요 덕목들에 의해 보호된다고 말한다. 즉 개인의 삶의 단계들은 그 관계적 의미에서 볼 때, “상호적으로 사는 것”이다.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때, 사실상 그 사람은 그를 움직이는 다른 사람들의 단계들과 함께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릭슨에게 있어서, 전체 삶의 주기는 통합된(integrated) 사회심리적 현상이다.¹²⁾

이상의 결론들을 근거로 하여, 이어지는 단락에서 필자는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신학적 의미들을 숙고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신학적 숙고를 함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바의, 즉 에릭슨의 이론이 기초해 있는 ‘발달적’ ‘상호관계적’ 원리들에 주목할 것이다. 필자가 다음 단락에서 사용하게 될 4가지 관점들은, ‘실존주의,’ ‘인간 안에 있는 타고난 능력,’ ‘발달적 진보,’ 그리고 ‘상호성’이다. 동시에 필자는 에릭슨에 대한 필자의 숙고들을 칼뱅이 보여 준 칭의와 성화에 대한 그의 신학에 연결시킬 것이다. 에릭슨에 대한 필자의 신학적 숙고들을 칼뱅의 신학에 연결시켜 봄으로써 필자가 분명하게 하려는 것은, 칼뱅의 가르침들이 에릭슨의 이론을 일정 부분 지지하고 있으며, 신학적 관점으로부터 필자가 에릭슨의 이론에 제기하는 질문들에 함축적으로, 그러나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12) Erik Erikson, *Insigh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Norton, 1964), 114.

III. 에릭슨의 도덕 발달 이론에 대한 신학적 숙고와의 대화 속에서 본 칼뱅의 윤리적 신학에 대한 재-숙고

1. 실존주의

필자의 이해에 따르면, 인간의 도덕 발달에 대한 에릭슨의 이해는 그 내용과 강조점에 있어 매우 ‘실존적’(existential)이다. 그것이 실존적이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위기, 긴장, 그리고 개인적 결단 등의 관념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실존적’이란 개념은 지난 세기 인간 존재의 질문에 응답하고자 한 기독교 신학의 다양한 시도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였다. 에릭슨에게 있어서, 8개의 덕목들 각각은 에릭슨이 신뢰감 대 불신감,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돈 등과 같은 양극적 용어들로 묘사하는 그 심리적 위기로부터 성장, 발전한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도덕적 덕목들은 인간 개인이 더 좋은 쪽 또는 더 나쁜 쪽으로 결정적으로 그 방향을 정하는 소위 위기의 순간들에서 열매를 맺는다.

피디스칼지(Nicholas Piediscalzi)¹³⁾가 지적하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에서 인간 발달의 각각의 단계는 위기(crisis)이다.¹⁴⁾ 첫째, 개별 인간은 자신의 전체 삶에 궁극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결정들을 스스로 내려야 하고 또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행동들을 취해야 한다. 둘째, 라이프-사이클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동은 개별 인간으로 하여금 성공 또는 실패라는 이중의 가능성에 직면하도록 한다. 셋째, 이전 단계(previous stage)를 떠나면서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행동 양식들을 포기하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불안의 원인이 된다.

13) Nicholas Piediscalzi was the founder and longtime chair of the Department of Religion at Wright State University.

14) Nicholas Piediscalzi, "Erik H. Erikson's Psychology of Religion," in *Religion and Social Sciences*, comp. H. Clark (1973), 12.

또한 발달 과정의 각 단계에는 심각한 긴장(tension)이 있다. 예를 들어, 신뢰감과 불신감의 느낌들이 그 안에서 신뢰감이 우세하지만, 그러나 결코 불신감을 제거하지 못하는 변증법적 긴장 상태로 형성된다. 게다가,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각각의 덕목은 발달 과정에서의 한 위기에 대한 단지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 위기에 대한 능동적이고 심오하게 개인적인 응답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신앙을 구성하는 것은 더 이상 각자가 전수받은 종교적 믿음들이나 부모가 물려 준 가치들이 아니다. 오히려 각자가 인격적으로 수용한 믿음들이고 확신들이며, 다시 말하면, 신앙은 각자의 “자기 정체성”(ego identity)의 기본적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각각의 발달 단계에서 인간의 상태는 위기, 긴장, 그리고 개인적 반응(reaction) 또는 결단(decision)이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그 모든 상태들이 인간의 상황을 실존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실존적 상황은 개별 인간들로 하여금 어떤 신학적 판단들에 직면하게 만든다.

그러나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에릭슨의 이론이 지나치게 많이 ‘자아’ 중심적(ego-centered)이라는 것이다. 에릭슨은 숙고와 선택의 기능들에서 자아의 역할을 논의한다. 에릭슨에게 있어서, 핵심적 선택들은 한 인격체의 발달의 나머지에 대해 그들 나름의 결과들을 가진다. 여기서, 인간 존재는 위기 또는 긴장에서 행동하고 결단하는 중심이다. 더 나은 것과 더 나쁜 것을 향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우선권은 항상 그리고 전적으로 각 개별 인간에게 달려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질 수도 있다. 즉 에릭슨은 신학적 의미에서의 어떤 종류의 결정주의(determinism)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에릭슨에게 있어서, 인간 존재에게 가장 실제적인 차원은 인간 존재의 편에 있는 자유의 차원이며, 이것이 발달 과정에서 의미심장하게 발견되는 것이다. 이것이 에릭슨의 도덕 발달 이론이 가지는 윤리적 강점이며, 동시에 신학

적 관점에서 볼 때의 한계이기도 하다.

이제 에릭슨의 이론에 대한 필자의 신학적 숙고에서 ‘실존적’의 성격에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에 대한 칼뱅의 가르침을 적용해 보면, 우리의 논의가 한층 진일보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한마디로, 칼뱅의 칭의 교리를 또한 실존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 즉,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격적 응답인가? 사실상, 칼뱅의 가르침에서 용서, 구원, 화해, 칭의의 전 과정은 능동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인 것처럼 보인다. 칼뱅에게, 칭의는 하나님의 의한 은총의 받아들여짐이며 죄들의 용서이다. 칭의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들로 그의 호의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임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행위들의 의로부터 벗어나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그것으로 옷입으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로운 인간으로 나타난다.”¹⁵⁾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칼뱅에게 칭의는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의의 전가(imputation)에 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본래적으로가 아니라 전가에 의해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칼뱅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로워야 한다는 오시안더(Osiander)의 가르침에 반대한다. 오히려 칼뱅에게 있어서 “칭의”라는 표현은 법률상의 용법이며, 고소와 대조되는 말이다.¹⁶⁾ 하나님은 황송하게도 그분의 순전하고 자유롭게 주어진 선함으로 죄인을 끌어안으심으로써 죄인이 그 자신의 행위들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그의 구원의 전체를 하나님의 자비에 두도록 한다.¹⁷⁾ 따라서

15) *Institutes*, III, xi, 2.

16) *Institutes*, III, xi, 11.

17) *Institutes*, III, xi, 16.

칼뱅은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즉, 칭의와 관련해서 믿음은 단지 수동적인 어떤 것이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일에 그들 자신의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며, 그들이 결여하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부터 받기 때문이다.¹⁸⁾ 이러한 이신칭의 교리가 루터의 중심사상이며, 또한 칼뱅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의의 전가(the imputation of righteousness)에도 불구하고 이신칭의는 여전히 죄인과 구세주 그리스도 사이의 실존적 만남의 사건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난다(find and meet). 특히 칼뱅이 루터와 다른 것은, 그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더 많은 무게를 둔다는 사실에 있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 결단과 신실한 복종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화의 과정 사이에 있는 인간 존재이다. 칼뱅은 자신의 칭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강조로 시작한다. 심지어, 그는 "말씀을 제거해 보라. 그때는 어떤 신앙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¹⁹⁾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물론 칼뱅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믿음은 성령의 주된 사역이다.²⁰⁾ 그 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특히 교회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조명하고 인간의 의지 또는 가슴을 선택, 결정, 그리고 신뢰로 인도한다.²¹⁾ 인간은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칼뱅의 방법은 경험적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독교적 성격 형성을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의 증거로 모든 면들에서 우리를 대면하심으로써 이것을 행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18) *Institutes*, III, xiv, 5.

19) *Institutes*, III, ii, 6.

20) *Institutes*, III, i, 4.

21) *Institutes*, III, ii, 36.

의 사역들과 말씀을 통해 그분의 정의와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질들과 같은 명제적 교리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교리들과 주장들은 하나님의 사역들에 대한 경험의 결과이며, 성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경청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철학적 사변의 결과가 아니다.²²⁾ 칼뱅에게 있어서, 기독교적 변화의 동인(動因)은 어떤 교리의 고수나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 대한 신실한 노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칭의에 대한 칼뱅의 이해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에 있기 보다는 주로 경험에, 또는 실존적 만남에 있다는 근대 신 개신교 신학의 자유주의적 견해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적 신앙체험에 대한 강조가 슐라이어마허와 같은 개혁전통의 신학자에 의한 종교개혁의 신학적 관심의 계승인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인간의 타고난 능력

다음으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에릭슨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에 관하여 견고한 계획을 세우고자 시도한다는 점이다.²³⁾ 에릭슨에 따르면, 인간의 타고난 능력은 도덕성들에 의해 배양되는 것으로서의 고결함과 정직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타고난 능력”(inherent strength)의 의미로 고려되어야 한다.²⁴⁾ 그러므로 에릭슨의 이론은 도덕적 단계들의 발달 사이클에서 일종의 질서(orderliness)를 전제한다. 이러한 개념은 에릭슨이 말하는 후성설적 과정의 궁극적 원천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

22) Ellen, T. Charry, “The Moral Function of Doctrine,” *Theology Today* 49 (April 1992), 43.

23) Erikson, *Insigh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Norton, 1964), 156.

24) Ibid., 111.

하나님의 어떤 역동적 활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은 각 인간 존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신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그러한 인간의 타고난 능력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구조물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종교적인가? 게다가, 그것은 훨씬 더 질서에 위배되고 비연속적 과정은 아닌가? 한편 그것은 인간 발달의 다양성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칼뱅의 신학적 인간학의 관점에서, 먼저, 인간 존재의 타고난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칼뱅에게 있어서, 기독교적 삶의 궁극적 원천은 성부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은총이다. 그리고 모든 참된 지혜와 순수 정의의 원천은 오직 주 하나님, 그분의 지혜, 정의, 그리고 의지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는 두려움,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없이는 생각될 수 없다. 인간을 선한 행위들로, 감사와 순종으로 가득찬 봉사의 삶으로 부르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다. 기독교적 삶의 가장 깊은 뿌리는 타락한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서 발견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총은, 칼뱅에게 있어서, 도덕성 배후에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예를 들어, 선택에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연민에 다름 아니다.²⁵⁾ 둘째, “타고난 능력”은 인간 본성에 대한 칼뱅의 논의에서 생각될 수 있다. 칼뱅에게 있어서, 선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사실상,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법은 자연법에 대한 증거이며,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들 안에 심어 둔 양심에 대한 증거이다.”²⁶⁾ 말하자면, 인간의 이성과 오성은

25) *Institutes*, III, xxii, 11.

26) *Institutes*, IV, iv, 16.

‘정의의 씨앗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관계시키고, 자신의 형상을 인간에게 각인시킨다는 이 두 가지 점들은 인간 안에 있는 타고난 능력이 근본적으로 종교적으로 근거해 있으며 질서 있게 발달한다는 사실을 지지해 준다.

3. 발달 과정

한편, 에릭슨의 진화적 발달 이론은 각 개인의 신앙 발달에서 ‘진보성’(progressiveness)을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각각의 새로운 낯은 완성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의미한다. 실로 기독교적 삶에는 선물이며 동시에 목표이기도 한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 있다. 기독교적 신실함이 가지는 참된 성격은 언제나 창조로부터 타락을 통해 회복과 완성의 약속을 향해 가는 역사의 움직임이라는 더 큰 맥락 안에서 비로소 설명된다. 한 기독교인의 삶의 여정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한 개인적 거룩성을 향한 근본적 부름으로 시작한다. 어떤 의미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전통 신학이 유년기의 발달을 무시했으며 한편 종교적 또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이상에 따라 성인기의 변화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 신학은 오늘날의 발달 연구가 제공할 수 있는 그 풍부함에 스스로 노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 상태에 대한 풍부하고 경험적 관념을 획득하기 위해 사회과학을 사용하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과학을 관통해 흐르는 명제들과 주제들 가운데 일부가 기독교 신앙의 지배적 취지와 얼마나 양립가능한가 하는 질문이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발달 이론들이 인간 본성에 관한 기독교적 사고와 서로를 풍부하게 하는 관계성 안에 놓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가능하며 필요하다는 것이

다.²⁷⁾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적 신실함의 중심에는 일부 근본적인 불연속성들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전통적 신학 범주들과 에릭슨의 라이프-사이클 이론과 같은 발달 이론들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연속성과 불연속성 사이의 차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결정적이고 변화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옛 삶으로부터 새 삶으로의 필수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앙은 근본적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앙에 대한 발달적 이해는 신앙에 대한 어떤 성서적, 신학적 설명들과 함께 가는 것이 쉽지 않다. 기독교적 개념인 *metanoia*²⁸⁾가 의미하는 바는 신앙의, 신앙 안에서의, 그리고 신앙을 향한 근본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점진적 성장을 주장하지 않으며, 실존적 변화를 주장한다. 게다가, 완전주의적 경향들이 의미하는 바, 즉 많은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방식들로 어떤 단계들을 통과한다는 사실은 결코 어떤 보편화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성화에 대한 칼뱅의 교리는 위에서 말한 기독교적 실존에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 의미 있는 대답을 제공한다. 칼뱅에 따르면, 칭의는 회개를 통한 성화를 전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화의 과정이 칭의를 전제한다. 즉 의롭게 된 사람(*persona*)이 일(*opera*)에

27) Clyde J. Steckel, "The Emergence of Morality and Faith in Stages: A Theological Critique of Developmental Theories," in *Changing Views of the Human Condition*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87), 165.

28) *Metanoia*는 그리스어 *μετάνοια*로부터 왔으며, 생각을 바꾸기, 회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황들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의미들로 쓰인다. 신학적 논의에서 그것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며 대개 회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Metanoia*가 생각을 바꾸는 것을 문자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런 경우에도 적어도 현재의 한계들 또는 사고의 유형들을 넘어 서 있는 생각들을 수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때,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선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화의 과정 사이에 있는 한 인간이다. 각 기독교인은 자신의 전체 삶을 통해 성화를 향해 부름 받은 상태에 있다. 성령의 내적 활동과 신자의 인격적 결단에 의해 시작하는 과정이 그 신자의 전체 삶을 통해 계속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의 일이며, 각 신자가 의와 거룩함을 성취하는데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그것은 미래의 삶에서 이루어질 완성과 완전을 향해 방향지어져 있다. 이제 그 기독교인은 전체 삶의 성장과 변화라는 길 위에 있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칼뱅에 따르면, 이러한 회개와 성화의 지속적 과정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일어난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명령된 삶을 사는 것은, 칼뱅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향해 움직이는 삶은 계명들에서 명백하게 된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의지에 능동적이고 충만한 기도의 순응으로 살아지는 삶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지이고, 명령이며, 요구이다. 특히 “율법의 제3사용”은 의롭게 된 죄인들이 자신들의 전체의 삶들에서 성취해야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다. 칼뱅에게 있어서, 신자의 삶에서 율법의 주된 사용은 소위 율법의 제3사용이다. 즉 신앙과 행위를 위한 규범이며 안내이다. 율법-말씀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별할 수 있으며, 그것을 알 수 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들로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신실하게 사는 것을 배운다.²⁹⁾ 그러므로 예수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러 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마 5:17-18) 칼뱅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총체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이성과 의지가

29) Richard L. Spencer, “Reformed Spirituality and the Moral Law,” in *Christian Ethics in Ecumenical Context*, ed. S. Chiba and others (Grand Rapids: Eerdmans, 1995),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이 지점에서, 칼뱅은 기독교적 삶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특징 지운다. 칼뱅이 “모든 선의 시작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둘째 창조로부터 온다”고 칼뱅이 말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다.³⁰⁾ 십자가는 구원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의무이며 과제이다. 성부 하나님이 그분의 장자, 그리스도를 사랑했을까라도,(마 3:17;17:5) 그분은 그의 아들의 전체 삶을 십자가의 삶으로 만들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그와의 사랑의 교제에로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삶 안으로 그의 제자들을 초대했다.(마16:24)³¹⁾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는 하나의 본보기로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그의 본보기를 우리의 삶에서 표현해야 한다.”³²⁾

십자가를 지는 실천 안에서 인내와 순종의 삶은 인간의 노력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내리셨던 그 은총들 안에서 가능하다. 여기서, 에릭슨의 이론에서의 자기-중심성의 경향은 다시 한 번 극복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 중심성”의 동기이며 모델이기 때문이다.

4. 상호성

끝으로 에릭슨은 인간의 강점들의 발달 사이클에서 상호성의 원리(the

30) *Institutes*, II, iii, 6.

31) *Institutes*, III, viii, 1.

32) *Institutes*, III, vi, 3.

principle of mutuality)를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에릭슨에 따르면, 인간의 강점은 세대들과 사회의 구조를 동시에 조절하는 전체 과정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희망(hope)의 발생은 세 가지 좌표들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즉, 자신의 과거 유년시절에 대한 어머니의 모성(motherhood), 어머니-자녀 관계 자체, 그리고 출산에 있어 신앙을 제공하는 제도들에 대한 어머니와 자녀 모두의 관계가 그것이다.³³⁾ 게다가 에릭슨은 어떤 하나의 덕목 또는 제도 안에서 어떤 단순한 일치를 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각 개인의 인생 사이클에서 덕목들 사이에서 상호적 활성화와 보충을 위치시키고자 했다.³⁴⁾ 현대 신학의 논의들에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간주된다. 따라서 개인들 또는 공동체들이 그것들 안에서 함께 서고, 일하고, 살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상황들은 모든 신학적 논의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상호성에 대한 너무 많은 의존은 자칫 상대주의로 빠지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신학적 의미로 인간 실존을 정의함에 있어서 인간 관계들, 문화와 사회의 중요한 역할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한, 신학이 세속 문화가 초래한 지적 모델들에 의존해 왔다는 사실이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도 여전히 제기되어야 한다. 문화적, 사회적 주변 상황들과의 관계에 대한 강조는 상대주의적 결론들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따라서 관계성(relationality)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경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결코 틀리지 않다.

칼뱅에게 있어서, 기독교적 경건은 하늘을 향해 방향지어져 있는, 즉 하나님을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며 사회적인

33) Erikson, *Insight and Responsibility*, 152.

34) Ibid., 155.

것이다. 칼뱅에 따르면, “동등성(equity) 만이 모든 법의 목표이고 규칙이며 한계선이다.”³⁵⁾ 그런 다음, 칼뱅은 사랑의 지속적인 규범은 창조의 법 또는 그것에 따라 전체의 자연-사회 질서가 설계된 법이다. 또한 칼뱅은 인간관계들, 특히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성을 강조한다. 기독교적 인격의 형성은 사회적 또는 공동체적 상황 안에서 일어난다. E. T. Charry가 표현하는 바와 같이,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하나님, 자연 세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는 대단히 구조화된 사회 구조에 고착되어 있다.”³⁶⁾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도구들 만에 고립되어 있거나 남겨져 있지 않다. 그들은 자신에게 국한된 피조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관계된 피조물들이다. 결과적으로 종교적 의식과 기독교인의 행위들은 항상 사회적, 윤리적 함의들을 가져야 한다.

IV. 마치는 말

신학을 전공한 사람의 관점에서 필자는 에릭슨의 도덕 발달 이론을 분석했으며, 그것이 몇 가지 종교적, 신학적 차원들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했다. 필자의 이해에 따르면, 에릭슨의 이론이 매우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는, 특히 그것이 인간의 도덕적 결단과 인간의 발전과 관련해서 실존적이고, 본래적 깊이의 차원에서, 발전적이고, 상호적인 차원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종교와 도덕, 교리와 윤리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은 매우 필수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필자는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대한 필자 나름의 성찰들을 칼뱅의 칭의

35) *Institutes*, IV, xx, 15.

36) E. T. Charry, “The Moral Function of Doctrine,” 45.

와 성화에 대한 신학에 연결시켜 보았다. 칭의와 성화에 대한 칼뱅의 신학은 기독교인의 삶이 몇 가지 도덕적 발전의 차원들을 가지며, 또한 종교적이고 공동체적 본질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필자는 필자 자신의 본래 가정인 칼뱅의 신학은 매우 강력한 윤리적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기독교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다. 이러한 개념은 칼뱅의 신학과 윤리를 결정한다. 칼뱅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의 삶은 기독교 신앙의 열매이다. 전체적으로 칼뱅의 신학은 하나의 윤리적 구조를 드러낸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칼뱅의 신학은 루터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한국의 장로교회들을 향해 한 마디 던지고 싶다. 누구보다도 한국의 장로교회들은 칼뱅 신학의 윤리적 함의들에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이 주목해야 한다. 한국 교회들의 문제는 그들이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에 관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한국의 개신교회들은 그들의 형제 교파인 가톨릭교회와 비교할 때,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다. 한국의 개신교회는 신학의 주된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로부터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의 원리로 옮김으로써 구원에 대한 개인주의적 해석으로 치우쳤고, 결과적으로 기독교적 삶의 윤리적 차원을 간과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결국 복음을 기독교적 삶으로부터 사변적 철학으로 옮긴 것과 다름 아니며, 그것은 명백하게도 종교개혁자들이 의도했던 바가 아니다. 중세의 스콜라주의나 17세기 정통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교리들의 단순한 고백이나 교리들의 체계화로 옮겨버린 것과도 같다. 오늘 우리를 도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인의 삶은 그 현실적이고 체험적 삶에 있어서의 은총의 선물이자 동시에 거룩한 과제이다. 자신들

의 죄들을 고백하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학과 교회의 갱신을 자신들의 결단과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한국 교회들과 그 구성원들에게 던지는 과제이다.

참고문헌

- Calvin, J.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 2*.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4.
- Charry, E. T. "The Moral Function of Doctrine". *Theology Today* 49. (April 1992): 31-45.
- Erikson, E.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63.
- _____. *Insigh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Norton, 1964.
- Fuller, R. C., "Erikson, Psychology, and Religion." *Pastoral Psychology* 44 (1996): 371-383.
- Leith, H. H. *A Study of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Michigan: Ann Arbor, 1949.
- Phillips, "Life Cycle and Images of God". *Pastoral Psychology* 40(1992): 167-177.
- Piediscalzi, N. "Erik H. Erikson's Contribution to Ethics". *Journal of Religion & Health* 12 (April 1973): 169-179.
- Piediscalzi, N. "Erik H. Erikson's Psychology of Religion" In *Religion and Social Sciences*. comp. H. Clark, 11-16, 1973.
- Roach, D. R. *Ethical Implications of John Calvin's Theology*. Texas: Fort Worth, 1951.
- Spencer, R. L. "Reformed Spirituality and the Moral Law" In *Christian Ethics in Ecumenical Context*, ed. Shin Chiba and others, 72-85. Grand Rapids: Eerdmans, 1995.
- Steckel, C. J. "The Emergence of Morality and Faith in Stages: A Theological Critique of Developmental Theories" In *Changing Views of the Human Condition*, 159-177.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87.
- van der Walt, T. *Our Reformational Tradition*.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PUC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84.
- Yankelovich, D. & Barrett, W. *Ego and Instinct: The psychoanalytic view of*

human nature revisited, New York: Random House, 1970.

논문투고일 : 2010. 04. 28

심사개시일 : 2010. 05. 12

게재 확정일 : 2010. 05. 30

 • 국 문 초 록 •

인간의 윤리적 의식의 발달 과정을 파악하려고 애쓰는 정신분석 연구는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 특히 윤리적 함의(含意)들을 발견하려는 새로운 흐름의 신학적 시도들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에릭슨의 도덕발달 이론은, 특히 그것이 인간의 도덕적 결정과 발달이 가지는 실존적, 인간 본래적 깊이의, 발달적, 그리고 상호적 차원들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종교적이며 신학적이다. 사실상 소위 '종교성(religiousness)'은 몇몇 명제적 진리 주장들을 단순히 고백하거나 어떤 내적 정서 상태나 감정을 단순히 표현하는 것 이상의 문제이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실제적 삶의 다양한 측면들에 크게 관계되어 있다. 말하자면, 종교적 의식은 신자 각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결정하도록 도전하는 어떤 윤리적 계기들을 제공한다.

칼뱅 신학을 논함에 있어 때로 그것의 윤리적 측면을 간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의 신학이 매우 윤리적 지향성을 가진다는 사실은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 글이 보여주는 것처럼, 에릭슨의 도덕발달 이론은 필자로 하여금 칼뱅 신학에서 윤리적 성격을 숙고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즉 에릭슨의 도덕발달 이론에 대한 몇 가지 신학적 숙고들은, 특히 칭의와 성화에 대한 칼뱅 신학에 적용시켜 볼 때, 기독교인의 삶은 다양한 도덕적 발달 차원들을 가지며 또한 종교적이고 공동체적 본성을 가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칼뱅에게 있어서, 이신칭의는 죄인과 구세주 그리스도 사이의 실존적 만남의 사건이다. 그리고 칼뱅의 신학적 인간학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관계시키고, 자신의 형상을 인간에게 각인시킨다는 이 두 가지 점들은 인간 안에 있는 타고난 능력이 근본적으로 종교적으로 근거해 있으며 어느 정도 질서 있게 발달한다는 사실을 지지해 준다. 게다가, 칼뱅의 성화 교리에서 기독교인은 전체 삶의 성장과 변화의 발전적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가르친다. 끝으로, 칼뱅은 인간 실존을 신학적 의미에서 정의함에 있어서 인간관계들, 그리고 문화와 사회가 가지는 중요 역할을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경건은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인간 상호간의, 그리고 사회적, 공동체적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칼뱅 신학, 실존주의, 도덕 발달, 상호성, 과정, 심리분석
